

증령에 따른 치아 색조변화에 관한 연구

이정준*, 안승근, 박찬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심미적인 보철 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치아의 shade, shape, texture를 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 중에서 shade는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에 어렵고 많은 숙련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는 치주질환에 의한 치근의 노출이 일어나고 오랜 저작에 의한 치아 마모가 발생된다. 또한 색조는 어두어지고 갈색-오렌지 색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중 색조의 변화는 법랑질이 마모에 의해 닳아지고 내부에선 이차상아질이 형성되면서 어두운 색조를 나타내고 부가적으로 흡연, 음료 등이 치아표면의 색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색조선택에 있어서 기성 shade guide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shade guide의 색조가 자연치의 색조범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심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상악 중절치의 증령에 따른 색조 변화를 알아보고 더불어 색조선택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VITA shade guide와 자연치 사이의 색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하여 24세에서 67세까지 연령분포를 가지는 50명(남자 25명, 여자 25명)의 수복치료를

받지 않고 심한 변색을 보이지 않는 상악 중절치와 16색조로 나뉘어진 VITA shade guide를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spectrometer는 주위광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치아의 색조를 측정할수 있는 장비이다. 각 치아를 cervical, middle, incisal 세 부위로 나뉘어서 측정 전 치면을 잇솔질로 cleaning 하였고, VITA shade guide 역시 steam cleaner 와 air syringe를 통해 cleaning 하였다. 색조는 CIELAB color system에 의해 L*, a*, b*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증령에 따른 치아 위치별 색조의 변화를 알아보고, 또한 흔히 사용되는 VITA shade guide 와 자연치와 색조를 비교하고자 한다